요즘 카니발리즘(cannibalism)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육을 먹는 끔찍한 캐릭터인 한니발 렉터(Hannibal Lecter)의 귀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변화 속에서 인터넷으로 벼락부자가 된 다수의 기업들이 오랫동안 성공을 구가해왔던 기존의 기업과 사업방식의 판세를 뒤집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의 판단대로 기존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기술과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기반이 된 수익이 약화되더라도 스스로 개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지만 이 딜레마에 대해 미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결말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업 스스로가 오늘날의 손해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내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끌려갈지도 모른다. 제 살 깎아먹기는 본능에 반하는 일이라 하기 힘든 일로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장시설이나 유통사와의 관계와 같은 과거의 투자 및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종 의도적으로 수익률과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서 짧게 말해 유능한 기업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두 명의 경영학 교수가 최근 11권의 마케팅 저서를 조사한 결과, 그 중 9권의 저서가 카니발리즘을 피해야 할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라는 표현도 들어있었음을 발견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카니발리즘의 오류’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연합은 일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여겨진다. 전세계의 경쟁당국은 국내외적인 연합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연합의 폐해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경쟁업체들이 담합 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경쟁은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업들의 비밀연합은 경쟁원칙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종류의 불공정행위 중 가장 유해한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기업연합에 맞서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첫 번째로 기업연합은 말 그대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그들의 감춰진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 정부기관에게는 종종 비협조적인 피고를 상대로 충분한 증거를 통해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할 막강한 힘과 기술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정부기관은 기업연합에 한해서만 그들의 음모를 와해하기 위해 정교한 관용을 베풀기도 한다. 네 번째로 정부기관은 국제기업연합을 수사하면서 사법권의 허용치를 시험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연합을 불법화 하기 위해 많은 정부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절차와 증거가 요구된다.